

시론



박준수 시인·경영학박사

광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하니 오전 이른 시각임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었다. 신고서 작성과 교육을 마치고 검문소를 통과해 통일전망대로 향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니 해안을 따라 늘어선 철책선이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언덕에 우뚝 솟은 전망대 꼭대기에 오르니 저만치 안개에 가려진 금강산이 희미하게 자태를 드러냈다. 필자가 20여년 전 한걸음 부 시절 금강산관광을 위해 잠시 들른 지 20여 년만에 두 번째 방문이었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왕복 12시간 넘게 걸려 고성을 다녀오는 동안 필자의 뇌리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잡한 현재 상황을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었다.

넓게는 남북분단과 통일문제에서부터 좁게는 지방소멸과 지역격차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공간 지점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관련들이 현실세계와 겹쳐지며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강원도 고성엔 6~25당시 가장 격렬했던 피어린 전투 현장이자 철조망으로 복합과 경계선을 긋고 있는 분단의 현주소이다.

안갯속 통일전망대 적막감 가득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 서둘러서 속소를 나서 출입사무소에 도착

서 둘러본 곳 가운데 인상깊은 장소는 화진포 일대 별장들이다. 송림숲 사이로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는 일찍이 일제강점기에 서양선교사들이 지은 별장들이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몇몇 별장은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승만 별장 위쪽 기념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물론 독립운동과 정치활동 기록물을 생생하게 전시해놓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수도권집중-지방공동화 실감

그렇게 2박 3일간 강원도 고성 휴가일정을 마치고, 6시간 가량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로 달려가는 동안 육안으로 지방소멸과 지역격차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다. 경기도 여주, 이천을 지나 대전에 이르기까지 고속도로 주변엔 뻣뻣한 빌딩숲이 이어지고 트레일러와 대형화물차들이 실새 없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대전을 지나면서부터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마술처럼 사라지고 만다. 건물 대신 초록빛 들녘이 한가하게 펼쳐지고 차량들도 승용차만 등장성들 다닌다. 바로 이 지

점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광주 전남에서만 살다가 가끔씩 수도권에 다녀오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엔 해가 갈수록 사람도, 차도, 빌딩도 북적대는데 광주 전남은 정반대로 헐거워지고 있으니 저절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예전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했지만, 이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몰리는 '이지향경(離地向京)'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신문을 들여다보면 거의 매일 지방소멸 기사가 빠지지 않고 실리고 있다. 최근 기사 가운데 전남의 경우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그 위험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영호남 지역간 경제적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방소멸과 지역격차 해소 문제는 통일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발등의 불이다. 지역 스스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만, 반도체학과 신설과 반도체 특화단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부터 지방에 우선 배정해서 급한 불부터 끄는 결단이 요구된다.

社說

광주시 인사와 소통 문제 직격탄 광주시의회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강기정 시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제309회 임시회 개최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직격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적극 행정과 소통으로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첫 인사이자 하반기 승진·진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인사교류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8급 하위직 결원 2명 충원과 전문위원실에 5급 탐장 배치, 특별전문위원실의 인력 보강, 4·5급 직원들의 진출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인사추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희율(남구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확대와 함께 선임 때마다 떠도는 사전내정설, 정치적 관행으로 여겨져온 공공연한 엮관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엮관제는 당파적 정실에

입각한 유형으로 실적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를 일컫는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만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장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배려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했던 외의 소속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결코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

이번 시의회의 문제 제기를 광주시는 곱씹어야 한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힘을 합해도 부족한 시기다.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강 시장은 정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서를 보내 "집행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함께하고,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전력해줄길 기대하겠다.

고려인마을 이민자 조기적응교육 포화라는데

광주 고려인마을이 법무부로부터 위탁 받아 이민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동포가 90일 이내에 이수해야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과정이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 기초생활, 동포들이 취약한 범죄 정보 등을 교육한다.

그런데 최근 수강생이 몰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항공권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국내 입국한 고려인동포가 600여명에 달하면서 1회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인터넷 접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고려인마을은 물론, 입국한 동포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육을 받지 않아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끝나 우크라이나 출신 이외의 외국인 수강도 높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악용해 접수대행 한국인 브로커들도 성행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급하다.

문제는 수도권의 위탁기관들이 매월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 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광주로 몰리는 만큼 우선해서 수강 규모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고려인마을과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고통을 살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닌가 싶다. 인도주의적 실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 고려인마을에 수용 인원을 크게 넘어서는 교육생이 몰려 포화상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산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고려인마을의 사정을 헤아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해법을 내야 하겠다. 브로커들까지 활개치는 현재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 결혼 및 교육, 취업 등을 위한 이민자, 그리고 난민 증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역별로 위탁기관을 확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이 6개월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파괴와 살상,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하는 가운데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계 기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다.

청년칼럼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

광주청년주간

하고자 한다. 올해 청년주간은 'what's your color?' 라는 주제로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원탁버스, 강연경연대회, 버스킹대회 등의 사전 붙임 프로그램과 함께 EDM페스티벌과 청년정책퍼런스,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는 형형색색퍼펙트(전시, 홍보부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격유형검사를 포함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고 있다. 청년주간을 처음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주제의 부분이었다. 과연 2022년의 청년주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19를 겪어온 우리가 코로나 이후 축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간의 청년축제는 2015년 관장은청년들부터 시작하여 청년은 히어로다, 청년은 한다, 청년은 하나다, 청년의바다, 잇고있고있다, 청년이청년하다 등 매년 주제를 잡고 진행하였다. 참 좋은 표현들이었다. 그 시대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도 같았다. 그리고 올해의 청년주간 총감독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청년들에게 축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였다. 그동안의 청년축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었다면, 올

해는 역으로 청년들에게 되묻고 싶었다. 당신의 색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사람입니까? 당신은 색이 있나요? 없으면 축제장에서 찾아보고, 있다면 뽐내보자. 올해의 주제는 청년축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자리였다. 나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부터 청년주간에 대한 본인의 생각, 홍보 방법, 무엇을 하고싶은지, 어떤 방향이고 싶은지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평일 저녁시간 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인원이 모여 각자간의 생각을 공유했다. 청년주간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머리를 식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답변부터 절대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 행사라든 안타까운 인식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홍보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 열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청소년과 청년이다.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며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겪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문제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SNS속의 본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 만나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광주청년주간은 청년이 축제의 주체가 되는 축제이다.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 특히나 청년이 축제의 총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광주청년주간은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축제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변화를 겪은 우리 대대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꼭 광주청년주간만이 그런 공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시도가 되길 바란다. 우리 광주는 광장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던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 광주에서 각자의 의견을, 그리고 각자의 색을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금 오길 바란다.

독자투고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기획해 청년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축제가 있다. 광주청년주간이 바로 그 축제이다. 2015년 세계청년축제를 시작으로 7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어왔다. 올해의 광주청년주간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시간 동안 금남로 전일빌딩부터 금남근린공원까지의 거리를 차량을 통제하고 운영이 된다. 지난해 세계청년축제가 광주청년주간으로 변경된 의미에 대해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다. 2022년 광주청년주간 총감독으로 선정되며 그 포부를 밝히는 의미였는데, 이제 한달 여의 시간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간의 시간 동안 광주청년주간의 대행사가 선정되고,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 올해 청년주간이 어떻게 준비되어왔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부터, 청년주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는 역으로 청년들에게 되묻고 싶었다. 당신의 색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사람입니까? 당신은 색이 있나요? 없으면 축제장에서 찾아보고, 있다면 뽐내보자. 올해의 주제는 청년축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자리였다. 나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부터 청년주간에 대한 본인의 생각, 홍보 방법, 무엇을 하고싶은지, 어떤 방향이고 싶은지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평일 저녁시간 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인원이 모여 각자간의 생각을 공유했다. 청년주간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머리를 식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답변부터 절대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 행사라든 안타까운 인식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홍보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 열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청소년과 청년이다.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며 본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독자투고

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여전

우리 주변에서 도로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도로교통법상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 행위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목포 지역에서도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업계도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으나, 분실·파손 등으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이용자가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모 대여 시스템 구축이나 속도를 더 낮추는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백대천·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업계도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으나, 분실·파손 등으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이용자가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모 대여 시스템 구축이나 속도를 더 낮추는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백대천·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불법 스팸 메일' 반드시 척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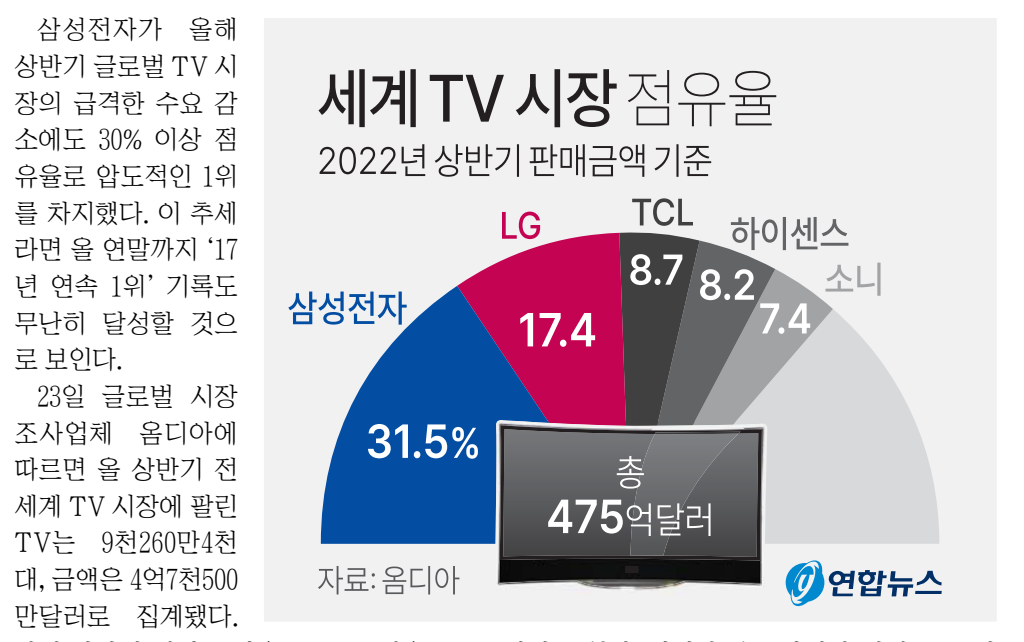
하루에도 수차례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 전화가 올 정도로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로 이를 악용한 불법 스팸이 일상화된 현실이다. 최근에는 스팸 광고임을 알려주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주는 요소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바이러스 침투의 통로가 되고 피싱 사기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형 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을 막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국의 관리 태만과 방지도 문제를 더 키웠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팸 메일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나 불법 도박, 작전주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황당한 기분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상거래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해서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대형 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을 막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국의 관리 태만과 방지도 문제를 더 키웠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팸 메일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삼성, 상반기 글로벌 TV 점유율 31.5%로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의 급격한 수요 감소에도 30% 이상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7년 연속 1위' 기록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TV 시장에 팔린 TV는 9천260만4천대, 금액은 4억7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수량은 6.6%, 금액은 12.5% 각각 줄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가전 수요가 급격히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별 점유율(금액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는 31.5%로 1위를 차지했다. TV 시장 전체 속에서도 작년 상반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LG(17.4%), TCL(8.7%), 하이센스(8.2%), 소니(7.4%) 순이었다. 수량 기준으로도 삼성전자가 21.0%로 1위였고 LG(12.3%), TCL(11.1%), 하이센스(9.5%), 샤오미(6.4%)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QLED 제품은 네오(Neo) QLED를 필두로 20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3천65만대가 팔리며 누적 3천만대를 돌파했다. 삼성 QLED는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464만대가 팔렸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취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광고문의 650-2099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광고국 650-2072 FAX 650-201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일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